

# WHO “백신 불평등 치욕스러운 일”

### 선진국 지도자들에 해결 촉구 “9월까지 세계 10% 접종해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브루스 에일워드 WHO 선임 고문은 10일(현지시간) WHO 소셜미디어 라이브 대화를 통해 전 세계의 백신 공급 불평등에 대해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지도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에서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0명의 사람이 있다”면서 “지도자들은 백신 공급을 받은 대기업들을 이끌고 있고, 세계에서 백신 대부분을 계약한 국가들을 이끌고 있고,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들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20명이 9월 말까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45억회분의 백신이 접종됐으며 세계은행의 분류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104회분의 백신이 접종됐다. 반면에 29개 최저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2회분의 백신이 접종됐을 뿐이다. 에일워드 고문은 “우리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9월 말까지 모든 국가에서 적어도 인구의 10%가, 올해 말까지는 40%, 2022년 중반까지 70%가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지난해 팬데믹 초기 대응이 미진했다는 비판을 전 세계적으로 받아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판단 착오 속에서 최고 수준의 경보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내장 선포했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중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봤다는 지적도 따랐다.

WHO는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 착용 효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지 않아 WHO의 방역 지침을 차용하던 일부 유럽 국가들이 뒤늦게서야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팬데믹 준비 및 대응을 위한 독립적 패널”(IPPR)은 공식적으로 WHO의 느린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WHO는 백신 공급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문제를 제기해왔고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도 주장했다.

WHO는 최근에는 백신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어도 9월 말까지는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집무실 떠나는 쿠오모 뉴욕 주지사  
성추행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10일(현지시간) 뉴욕시에 있는 주지사 집무실에서 사임을 발표한 뒤 대기하고 있는 헬리콥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만 회원 홍콩 최대 직업교사노조 해산 충격

### 중 압박에...“해산 외 방법 없었다”

중국의 압박 속 회원이 약 10만명에 달하는 홍콩 최대 단일 노조인 홍콩직업교사노조(PTU)가 자진해산을 발표하면서 홍콩 시민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연매출 3억 홍콩달러(약 445억원), 48년 역사의 직업교사노조가 해산까지 할 줄 몰랐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진영 다른 시민단체의 추가 해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전날 직업교사노조가 해산을 발표한 직후 직업교사노조의 공적과 코스웨이베이 센터에 인파가 몰려들어 기념품을 구매하고 사진을 찍으며 노조의 해산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경력 10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직업교사노조의 해산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제 정권이 좋아하지 않는 단체는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직업교사노조는 최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제기하며 비판하는 단체에서 최근 모

두 탈퇴하고, 지난주 교사를 대상으로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발표하는 등 친중 성향으로 돌아섰지만, 결국 자진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직업교사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노력에도 사방에서 공격이 이어졌다”며 “최근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큰 압박으로 다가왔고 해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직업교사노조의 종말은 홍콩에서 활동하는 다른 노조에 충격적인 전례”라며 “직업교사노조에 대한 공격은 또한 홍콩 학교와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직업교사노조의 자진해산 발표는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가 ‘악성종양’이라고 비난한 지 열흘 만에 나왔다.

이들 매체는 PTU가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학생들을 부추기며 홍콩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비판하면서 “악성종양은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화재로 초토화된 그리스 에비아섬 산림  
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형 산불로 초토화된 그리스 에비아섬 한 마을 산림의 10일(현지시간) 모습. 이번 화재로 섬 내 490km² 규모 산이 소실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서울 면적(약 605km²)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다. 이 섬에서는 지난 3일 첫 산불 발화 이후 섬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 코로나 하루 70만명씩 확진... ‘괴물 변이’ 지구촌 다시 비명

### 강한 전염력, 백신보급 효과 약화 봉쇄 재등장에 사회적 갈등 고조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델타변이의 강한 전염력 때문에 백신 보급을 늘려도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약화한 데 따른 현상으로 방역당국의 속을 태우고 있다.

11일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전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는 60만~70만명대로 집계된다. 이는 올해 4월 중순에 작성된 고점인 90만명대보다 낮지만 지난 6월 후반 20만명대보다는 훨씬 가파른 수치다.

각국 보건당국은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변이로부터 백신 미접종자를 비롯한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세는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속한 백신 보급을 토대로 지난달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방역 승리를 선언한 미국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국은 그 무렵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가팔라져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넘게 쏟아지고 있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는 미국(10만여명)이 최다로 집계되고 있다. 이란(3만9000여명), 인도(3만6000여명), 브라질(3만5000여명), 인도네시아(3만2000여

명), 프랑스(2만8000여명), 영국(2만3000여명), 러시아(2만1000여명)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확산세는 선진국, 개도국, 저개발국을 가리지 않는 모양새다.

미국 CDC는 델타변이의 기세에 놀라 지난달 27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연방 차원에서 권고했다. 루이지애나, 하와이, 워싱턴DC 등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다시 도입했고 다른 곳들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각국은 방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영화관처럼 50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가상화폐 거래 비트멕스 1000억원대 합의금

### 소송 해결위해 미 당국에 내기로

가상화폐 기반 파생거래 업체인 비트멕스(BitMEX)가 규정 위반 혐의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고자 1억 달러(약 1153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비트멕스는 앞으로 미국 거주자들에게 자사 플랫폼 이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CFTC는 비트멕스가 미국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규제 밖의 금융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멕스는 2014~2020년 거래자의 이메일만 수집하고 신분 확인은 하지 않아 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수사받았다. 미 제

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비트멕스가 마약, 해킹 등 불법 거래 통로인 다크넷(darknet)과 최소 2억9000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합의금은 민사 책임에 대한 것으로, 아서 헤이즈를 비롯한 이 회사 공동 창업자 3명에 대한 형사 재판은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비트멕스는 세이셸 공화국에 등록된 역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파생 거래도 하고 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영입한 미 가상화폐거래소 플로닉스에 대해 1000만달러의 제재금을 물린 것으로 지난 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



##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대출상담 환영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락 사법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

※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입구)